

특집

IMF체제하의 양돈장 경영전략



IMF체제하의 적정 양돈규모 설정과 운영방안

1. 적정규모란

필자가 지난 2월호에서 돼지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벌써부터 돼지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급상승하여 사료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 가격도 올라 생산비 또한 크게 높아졌다. 생산비가 상승된 만큼 가격이 상승되어 주지 않는 이상 소득이 줄어 양돈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이럴 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양돈 농가가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양시설 자체를 확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일이다. 둘째, 사양시설은 그대로 두고 사육두수만을 늘려 조업도(操業度)를 높이는 일이다.

적정규모라 함은 순수익(또는 이윤)을 최대화 하는 규모와 일정 소득을 확보하는 규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영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부업 양돈가나 가족 노동을 중심



허 덕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MF체제하의 양돈장 경영전략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양돈농가가 경영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으로 하는 전업 양돈가의 경우는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일 것이다. 이들은 원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규모가 어디냐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기업 양돈가의 경우는 순수익을 최대화하는 규모가 어디냐에 관심이 있다.

순수익이라 함은 조수입(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며, 소득이라 함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다. 경영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그런데, 농가들에게

물어 보면 감가상각은 계산치 않고 실제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현금비용에 관심이 많다. 물재비(物財費)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2. 양돈 규모별 수익 분석

환율이 급상승 됨으로써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이 40.4% 인상되었다. 2월에

평균 9%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가격이 또 한 번 오르면 작년 12월 9일 이후 사료가격이 53% 오르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농민들이 사료를 2~3개월 걸쳐 조

53%이므로, 이미 생산비가 21%이상 상승한 셈이며, 배합사료가격 3차 인상시에는 생산비가 28%이상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사료가격 뿐만이 아니다. 동물약품 가격도 이미 30~60% 정도 인상되었고, 유류대도 40~100% 정도 상승하였다. 은행이자율도 평균 6.5%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들을 모두 더한다면, 비육돈 생산비 상승



진으로 외상구입하여 왔으나 현재는 현금을 주고도 원하는 만큼의 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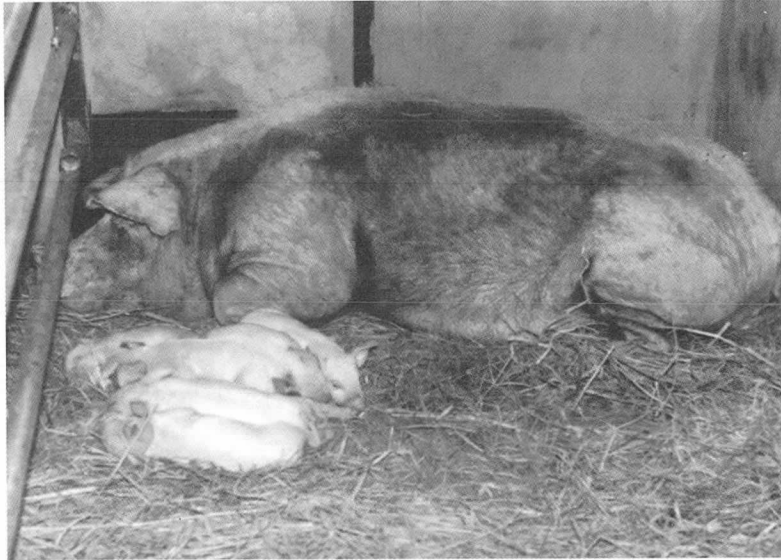
비육돈 생산비 중에서 배합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률은 적어도 32%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비 상승분에 비해 가격 상승분은 미미하다. 1998년 1월 21일 현재가격 176,900원을 1안으로 하고, 가격 전망결과의

<표1> 사료가격 인상률

구 분	인상전 ('97.12.9)	1차 인상 ('97.12.10)	2차 인상 ('97.12.22)	3차 인상 ('98.2.예정)
인상률(%)	-	10.0	27.6	9.0
양돈 육성사료가격(원/kg)	274	301.4	384.6	419.2
대비	100.0	110.0	140.4	153.0



470두 정도를 사육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200두 정도를 사육해서는 200~60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전업양돈을 하여 연간 3000만원 소득을 올리려면 1000~1800두 정도를 사육해야 한다. 돼지가격이 19만원대에서 형성될 경우 생산비가 낮은 농가라면 800두 정도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 두당 소득은 47,000원이었으며, 1996년 두당 소득도 34,600원이었고, 소규모 부업농가의 소득도 32,400원이나 되었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득이 낮아진다.

1996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사육두수를 2~5배 정도 확대해야 하는데, 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업을 포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대규모에서

아래치 187,000원을 2안으로, 그리고 윗치 192,000원을 3안으로 하여 양돈 농가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규모를 막론하고 조수입(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사양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규모 부업양돈의 경우는

생산비가 아주 낮은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거나 조업도를 다소 높이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안을 제외하고는 조수입이 경영비나 물재비보다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규모 부업양돈으로 1000만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400~680두 정도가 필요하고, 물재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330~

<표2> 가격 수준별 비육돈 수익분석 결과

항 목	1안			2안			3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조수입(A)	176.9			187.0			192.0		
물재비(B)	175.6	175.4	171.4	175.6	175.4	171.4	175.6	175.4	171.4
경영비(C)	179.3	178.2	173.8	173.3	178.2	173.8	179.3	178.2	173.8
생산비(C)	225.0	207.2	195.1	225.0	207.2	195.1	225.0	207.2	195.1
A-B	1.3	1.5	5.5	11.4	11.6	15.6	16.4	16.6	20.6
A-C	-2.4	-1.3	3.1	7.7	8.8	13.2	12.7	13.8	18.2
A-D	-48.1	-30.3	-18.2	-38.0	-20.2	-8.1	-33.0	-15.2	-3.1

*소규모와 중규모, 대규모의 구분은 축협중앙회의 생산비 조사에 의한 분류기준(소규모 100두 미만, 중규모 100~500두, 대규모 500두 이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규모 구분과는 차이가 있음.

〈표 3〉 연간 소득목표 3000만원 달성을 위한 필요 사육두수

구 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경영비 기준	물재비 기준	경영비 기준	물재비 기준	경영비 기준	물재비 기준
1안(176.9천원)	-	12,146	-	10,526	5,093	2,870
2안(187.0천원)	2,051	1,385	1,794	1,361	1,196	1,012
3안(192.0천원)	1,213	963	1,144	951	868	766

*출하두수/평균사육두수 1.9를 적용함.

도 마찬가지로이다. 1996년만 하더라도 같은 규모에서 2배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돈농가의 소득확보를 위한 경영전략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양돈농가가 경영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대의 호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가 바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부족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많아진다면 국내에 공급될 양은 더욱 적어져 가격 상승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돼지고기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득이되고, 양돈가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소비 문화의 차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부위는 안심, 등심, 뒷다리 등이 고가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있는 부위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하고 남은 잔여육이 국내에서 비교적 싼 값으로 유통된다면, 소비자에게 안겨지는 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양돈 농가가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은 품질을 향상하여 고가의 돼지고기를 만들어 내는 일과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다. 품질을 향상

시키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료비이다. 양돈에서 사료비를 줄이는 노력은 잔반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잔반을 사료화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비를 낮추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생산성 향상이다. PSY나 사료요구율 등 양돈생산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급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판매가격 자체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함과 아울러 생산비도 낮춘다면, IMF의 한파도 쉽게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養豚**

